

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함

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재

고린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, 여러분 와드의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. 이 때문에 여러분의 감독은 여러분에게 반이나 정원회 모임을 시작할 때 용서에 관한 생각을 간단하게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.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할 말의 개요를 작성한다.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고린도후서 2장 7~11절에서 적어도 하나의 성구나 문구.
2. 다른 성구 또는 교회 지도자의 말씀. (아래에 나오는 던컨 장로의 말씀이나 던컨 장로가 언급한 성구 중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.)
3.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과,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

용서에 관한 가르침

칠십인 정원회 케빈 알 던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.



분명 우리 대부분은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.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당장에 “저 사람은 잘못했어.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.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지?”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용서한다면,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처벌도 비켜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.

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공정한 벌을 부과하실 것입니다.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(앨마서 42:25 참조) 하나님은 사랑을 담아 여러분과 제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주셨습니다. “심판은 내게 맡겨 두라. 이는 심판이 나의 것이요 내가 갚을 것임이니라. [그러나] 너희에게[는] 평강이 있을지이다.”[교리와 성약 82:23] (케빈 알 던컨, “용서라는 치유의 연고”, 『리아호나』, 2016년 5월호, 33~34쪽)

- 마태복음 5:43~44
- 에베소서 4:32

예수 그리스도
후기 성도 교회